

캐 나 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진 캐나다는 세계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영토가 큰 나라이다. 인적이 닿지 않은 산림과 계곡이 지천으로 널려있고 수많은 야생 동식물이 인간과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드넓은 캐나다의 국토 중 사람이 사는 곳은 약 7% 정도라고 한다.

쾌적한 자연 환경과 느긋하게 살아가는 생활 자세로 인해 캐나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선 장수국으로 꼽

힌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에 이르고, 남성은 73세이다. 의학자들은 이러한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오래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평소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과로나 과식을 피한 사람들이다. 조금하게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남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여유있게 사는 것이 장수한다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한 진리인 것 같다.

캐나다에서 사람살기에 좋은 곳으로는 밴쿠버, 몬트리올, 록키산맥 부근 도시들이다. 밴쿠버는 태평양 연안의 항구도시로 바다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시내 중심가에 늘어난 고층 건물들을 바라보면 이곳이 토론토, 몬트리올 다음 가는 캐나다 제 3의 도시임

▼ 밴쿠버시는 해마다 전문단체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곳이다.



을 실감한다. 교외로 나가보면 푸르름이 넘치는 울창한 산림이 폭넓게 펼쳐져 있다.

서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캐나다에 처음 도착하는 곳이 밴쿠버이다. 따라서 밴쿠버는 우리에게 낯익은 도시이다. 시내의 코리아타운에 가보면 한글로 된 간판과 한국인이 경영하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다. 이곳에선 한국어만 알면 지내기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이다.

흔히 미국을 '인종의 용광로'라고 말하고 캐나다는 '인종의 모자이크'라고 말한다. 미국이 여러 인종이 한데 어울려 하나의 모습으로 융화시켜 가는데 비해, 캐나다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지켜가며 주변 사람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민도시의 특성을 잘 대변주는 도시가 밴쿠버이다. 시내를 다니면 프랑스, 영국, 독일, 중국, 한국 등에서 온 다양한 인종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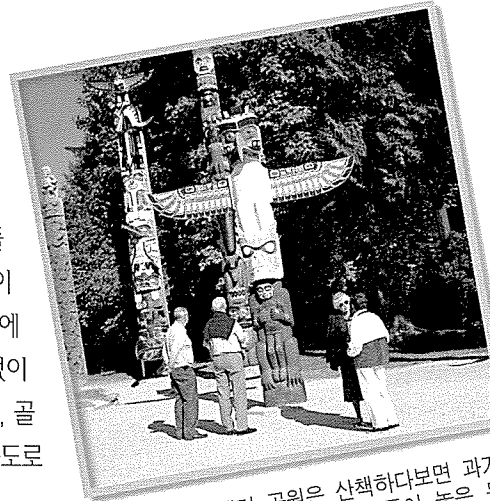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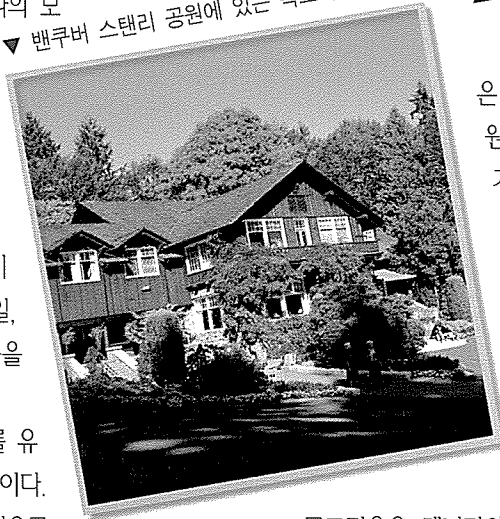
밴쿠버는 일년내내 온난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다. 태평양 방향에서 따뜻한 해류가 밀려오고, 동쪽에선 록키 산맥의 높은 산들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쾌적한 기후가 형성되는 것이다.

살기에 적합한 기후, 사회적 안정과 우수한 산업 시설, 여유있는 레저 시설, 넉넉한 인심 등이 밴쿠버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 한 곳으로 해마다 전문 단체에서

선정하게 하는 이유이다.

밴쿠버 시내에서 자동차로 5분이면 도착되는 스탠리 공원은 시민들의 안식처이다. 1000에이커가 넘는 광활한 공원에는 산과 호수를 훼손없이 보존하고 수족관, 동물원, 골프장, 해변,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갖추고 있다.

▼ 밴쿠버 스탠리 공원에 있는 목조가옥.



▲ 밴쿠버 스탠리 공원은 산책하다보면 과거 이곳에 살던 인디언들이 만들어 놓은 (木) 조각품들을 보게 된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빌려서 한바퀴 공원을 돌아보기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조깅이나 산책을 즐기기도 한다. 이처럼 밴쿠버는 문명과 자연이 잘 조화를 이룬 곳이며,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장수하는데 좋은 자연적 여건을 잘 갖춘 곳이기도 하다.

몬트리올은 캐나다의 동부에 위치한 고색창연한 도시이다. 흔히 몬트리올을 가리켜 '북미의 파리'라고 부른다. 도시 곳곳에서 프랑스의 향기와 색채를 물씬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의 간판이나 사람들의 대화에서도 불어가 폭넓게 쓰인다.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과거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유서깊은 건물들이 즐비하다. 변화가에는 파리의 최신 유행 물결이 일렁인다. 지구촌에서 몬트리올은 프랑스를 제외한 곳 중 가장 큰 프랑스계 도시이다. 유럽 각지에서 몰려온 이주민들과 어울려 다양한 문화 모자이크를 이루고 있어 흥미롭다. 프랑스에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



▲ 1829년 건설된 노트르담 대성당은 유서깊은 곳이다. 찬란한 황금빛이 도는 실내는 절로 신비감이 느껴진다.

면 어딘지 어렵게 느껴진다. 알면서도 영어 답변을 기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곳 몬트리올 시민들은 마음이 넓어서인지 관광객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1976년 제2회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로 잘 알려진 몬트리올은 오타와 강과 세인트로렌스 강이 합류되는 요충지에 세워져 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곳을 차지하려고 과거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현재 몬트리올은 북미 대륙에서 주목할 만한 항구도시이자 공업도시이다. 주민들 구성을 보면 프랑스계 캐나다인이 약 30% 정도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영국계, 이탈리아계, 그리스계 등이다.

몬트리올은 도시의 발상지인 구시가지와 화려한 다운타운으로 크게 구분된다. 대형 백화점과 일류 호텔들이 몰려있는 번화가에는 노상 카페나 다양한 상점 역시 준비하여 몬트리올이



▲ 손자를 안고있는 할머니의 다정한 모습. 캐나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는다.

세계 유수의 대도시임을 느끼게 해준다.

반면 구시가지로 들어서면 오래된 포석이 깔린 도로가 펼쳐져 있고, 17-18세기 식민지 시대의 고색창연한 모습이 절로 느껴지는 곳이 많다.

1642년 메종뇌브가 빌마리에 식민지를 건설한 이후 몬트리올은 지금까지 크게 발전을 해왔다. 1701년 인디언과의 평화조약 체결 이후 포피 무역이 성행하고, 프랑스 본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와 보다 부유한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

몬트리올을 처음 방문한 분은 밖에 뿌르라는 항구에서 유람선을 타면 좋다. 약 2시간 정도 세인트로렌스 강을 따라 운행하는 배에서 몬트리올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시내에서는 노트르담 성당이 단연 인상적이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당을 찾아 내부로 들어서면 웅장하고 신비스런 네오 고딕 양식의 건축물에 매료된다.

829년 건축되어 몬트리올에서 가장 오래된 노트르담 성당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과 휘황찬란한 스테인드 글라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77

글·사진/허용선
(여행 칼럼니스트)